

강진 농특산물,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통했다

2일간 1,500만원 매출... 강진 햅쌀, 쌀귀리 등 인기품목 조기 품절

서울 강남구 도곡역사아파트에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개최된 특량만강진만권 행사협회의 4개군(강진, 장흥, 보성, 고흥) 합동 직거래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도심 속에서 강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코로나 19 이후 몇 년간 중단됐던 아파트 단지 직거래 행사가 오랜만에 재개된 만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활기를 띠었다.

강진군은 이번 직거래장터에 11개 업체가 참여해 햅쌀, 쌀귀리, 연잎과자, 생표고버섯, 미역 등 약 30개 품목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인 12일에는 1,025만 원, 둘째 날인 13일에는 467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총 1,492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둘째 날 매출이 다소 낮았던 이유는 첫날 너무 많은 고객이 몰리면서 준비된 물량 상당수가 소진됐기 때문으로, 현장에서는 “벌써 다 팔렸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에서 현장 구매를 놓친 주민들은 위해 온라인 쇼핑몰 ‘초록민음강진’을 통해 언제든지 집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강진군은 오프라인 직거래행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적극 홍보하며,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를 열어가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생산자가 직접 설명하고 판매하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뢰가 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첫날 구매해 본 뒤 만족해서 다음 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다시 와서 추가로 구매했다”는 소비자도 많아 이틀간 연속 개최의 효과가 뚜렷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직판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가 직접 만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중순에는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개산대제’ 기간에 맞춰 직거래장터를 열 예정이며, 강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강진 농업의 가치를 서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농상생의 의미를 실현한 우수한 현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곡성읍신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2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등 어린이 중심의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다.

올해도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장미공원을 하나의 대형 체험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축제장 곳곳에 퍼포먼스존을 구현하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내달 23일~26일 섬진강기차마을서 열려

싱어롱쇼, 어린이 미션탐험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는 등 축제장을 기차마을 전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축제에 대비하여 12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등을 공유하고, 분야별로 관광객 맞이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 기간 중 주차·교통 대책과 유아·노약자 편의 제공, 환경정비, 불법 노점상 단속, 먹거리 위생, 물가

관리, 의료지원반 운영 등을 세심하게 논의했다.

정창모 부군수는 “올해는 기차마을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축제 전 기차마을 시설물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안전하고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완도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지역 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주관해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군은 ‘청정바다 수산양식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과 현장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완도군, 지역 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 대회서 ‘장관상’ 수상

청정바다 수산양식 플랫폼, 디지털 행정 혁신 모범 사례로 주목

‘청정바다 수산양식 플랫폼’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어류 집단 폐사 문제, 전복 가격 불안정, 홍수 출하 등 양식업의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혁신 사례이다.

플랫폼은 수질 센서와 감시 카메라 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으로 최적 먹이 공급 시점 제시 및 폐사 예측, 스마트폰 관제와 알람 시스템 등을 제공해 어민들이 손

쉽게 데이터를 기반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산업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양식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양시는 9월 17일 오후 3시 40분 광양상설시장 증축동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상설시장 증축은 지역 주민과 상인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추진된 사업이다. 증축동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점 등 먹거리 중심 점포가, 2층에는 소규모 점포와 휴게실이 들어서 시민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양상설시장 증축동, 9월 17일 개장식 개최

개장식은 광영동 풍물단 공연, 주민참여 레크리에이션, 시립국악단 공연 등 식전행사로 시작해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식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중소벤처기업청 및 전라남도 관계자, 광영동 사회단체장, 상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증축동 개장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광양상설시장 증축동 개장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이를 기점으로 전

통시장의 기능 회복과 광영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해중 투자경제과장은 “광양상설시장 증축동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상인과 시민이 함께 숨 쉬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20일 영암읍서 개최
‘청년이 주인공, 영암을 디자인하다’ 청년이 준비한 행사 풍성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일 오후 2시 청년종합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에서 ‘제4회 영암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인공, 영암을 디자인하다’를 구호로 지역 청년이 준비·참여하는 축제로 마련된다.

올해 7월 ‘영암 로또데이’ 준비부터 주도해 온 지역 청년들은, 이번 행사 구호, 프로그램 구성, 청년친화도시 퍼포먼스, 홍보 포스터 제작 등 전반을 맡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홍보 포스터 모델도 영암에서 청년미용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을 발탁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 유공자 표창, 청년친화도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퍼포먼스에는 11개 읍·면 청년이 함께해 지역 청년세대의 연대와 비전을 표현한다.

아울러 5개 청년팀이 청년정책을 제시하는 제안발표, 청년정책 수기 공모전 참여자가 제작한 홍보영상 상영 등 정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대행사로는 금순환경영화제 연계 청년영화 상영, 인생네컷, 청춘클



래스(사자보이즈 갓 키팅, 압화 소주잔, 불펜 만들기), 힐링부모 클래스(토이비누, 무화과 케이크 만들기), 청년성장 프로그램(피스넬컬러 맞춤상담), 고민해결 타로살롱, 청년 개발 디저트 시식 등이 마련된다.

영암군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이미 개최된 영암 로또데이처럼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흥군, 기업 인력수급 및 고용지원 설명회 개최

기업 인력난 해소·건전한 고용환경 조성 위한 실질적 정보 제공

장흥군은 지난 15일 군민회관에서 지역 기업 대표와 채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인력수급 및 고용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와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흥군일자리종합안내센터의 기능과 운영 현황, 기업 채용 DB 구축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사업과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해남고용센터), 이어 ▲경력단절 예방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안내(전남광역새일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군과 유관 기관이 함께 기업을 지원해주는 점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전라남도 주관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설명회와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인력수급과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인권 친화적 고용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상생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